

동북댐 저수율 20%대 ↓...고갈 '초읽기'

29.58%...1999년 전산화 후 12월 통계 첫 30% 붕괴
124일 공급 분...가뭄 지속되면 물 부족 현실화 위기
이달 들어 절감효과 8.2% 그쳐 목표치 20%엔 태부족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동북댐 저수율이 20%대까지 떨어지면서 물 고갈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 절약 캠페인을 통해 사용량이 줄어 고갈 시기를 다소 늦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3월까지 동북댐이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요 상수원 저수율은 동북댐 29.58%, 주암댐 30.86%으로 저수량은 각각 2천720만t, 1억4천100만t이다. 12월 동북댐 저수율 30%선이 무너진 것은 1999년 급수 통계를 전산화한 이후

최초다. 공급 가능 일수는 동북댐 124일, 주암댐 149일로 3-4개월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상이다. 최근 동북댐 저수율 추이는 지난달 30일 30.27%, 12월 1일 30.13%, 2일 29.96%, 3일 29.75%로 매일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28-29일 14mm의 비가 내렸지만 유입량은 4만1천t에 불과해 저수율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저수 용량이 주암댐의 5분의 1 수준인 동북댐 저수율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나마 광주시민 1일 물 사용량이 기존 20만t에서 16만t까지 떨어지는 등 눈에 띄게 줄었다.

이달 첫째 주 하루 평균 정수장 물 생산량은 45만6천m로 지난해 같은 기간(49만7천m)보다 4만1천m(8.2%) 줄었지만 장마철인 내년 6월까지 버티는데 필요한 절약 목표 2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대비 하루 평균 정수장 물 생산량 감소율은 10월 셋째주 1.2%, 넷째주 1%를 기록했다가 11월 첫째주 2.4%, 둘째주 2.4%, 셋째주 5.6%, 넷째주 6.2%로 높아지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당초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3월 말 동북댐 고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면에 계속 /박선장기자



“내년 3월 바닥”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주요 식수원인 화산 동북댐 저수율이 20%대까지 낮아져 제한급수까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가뭄으로 고갈 위기를 맞고 있는 동북댐.

‘지역 오피니언리더’를 모십니다



광주매일신문 제10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원우 모집
2023년 3월 개강...최고 강사진·세대 아우르는 학습의 장

광주매일신문이 광주·전남지역 오피니언 리더의 학습의 장인 제10기 창조클럽 아카데미에 각계 인사들을 모십니다. 또 강좌가 끝난 이후에는 동창회 활동을 통한 문화탐방과 친목활동은 물론 광주매일신문에서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0기 과정에서 고품격 강의와 소중한 만남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 인원: 00명
- 교육 기간: 2023년 3월 개강-12월 종강(연 16회 강좌)
- 지원 자격: 기업경영자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 강의 시간: 격주 화요일 저녁 7-9시(6시부터 식사)
- 강의 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 모집 기간: 2023년 2월 말까지
-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07, 2074

연일 이어지는 고병원성 AI...땡 뚫린 방역망

무안·함평서도 확진 판정...20일 사이 총 9건 발생
방역당국 “12월 내내 지속 발생 가능성 배제 못해”

전남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가금농가 집중 지역인 나주·영암을 AI 고위험 지역으로 설정하고 하루 3회 이상 소독하고 있지만 나주 뿐만 아니라 발생 지역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방역당국의 차단방역망이 사실상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무안군 현경면 종오

리 농장(8천마리)과 함평군 함평읍 산란계 농장(40만마리)은 모두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무안 종오리 농장은 올 겨울 전남지역 8차 고병원성 AI, 함평은 9차 고병원성 AI로 각각 기록됐다. 무안에서는 발생 농장을 포함해 반경 1km 내 3농가 1만9천마리, 함평에서는 발생 농장과 반경 1km 내 2농가 50만2천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함평군 엽다면의 산란계 농장(8만마리)에서 이날 또 다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곳 역시 발생 농장과 반경 1km 내 2농가 1만7천마리가 즉시 살처분됐다. 무엇보다 전남에서는 불과 20일 만에 고병원성 AI가 9건 확인되는 등 대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11월 17일 장흥 육용우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11월 23일 나주 육용우리 농장, 11월 27일 고흥 육용우리 농장, 11월 29일 나주 산란계 농장·육용우리 농장, 12월 4일 나주 육용

우리 농장 2곳, 12월 5일 무안 종오리 농장·함평 산란계 농장 등 발생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방역지역에 대한 집중소독과 이동통제, 정밀검사 강화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12월 한달 동안 고병원성 AI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희망2023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성금 접수 계좌

*광주사랑의열매: 053-107-999990(광주은행)
*전남사랑의열매: 301-4000-3000-01(농협은행)

물류난 심화...정부, 화물차 기사 현장조사

●화물연대 파업 12일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째 이어지면서 전남에서도 품질 주유소가 등장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물류난이 심화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제2소진 주유소는 전남 1곳 등 전국 총 96곳(휘발유 80개소, 경유 8개소, 휘발유·경유 8개소)에 달했다. 또 개별 탁송으로 완성차를 물류센터 등으로 옮기던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평동 출하장(5천대)과 장성 물류센터(3천대)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를에 따라 이

날부터 광주 제1전투비행단으로 적치를 시작했다. 현재 새로운 적지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번 주를 기점으로 물류 보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파업 직후 '0'이었던 전남지역 시멘트 출하량은 업무개시명령 이후 점차 늘어나 지난 3일 기준 1만3천으로 집계됐으며 시멘트 제조사가 없는 광주는 레미콘 출하량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반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 455명을 대상으로 운송 재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양시원기자

이 작품은 국민 정지은, 박지은, 박홍규, 도지인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2 대학생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천 원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 원 속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천 원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 원에 당신의 행복을 살 수도 있습니다.
소액 기부로 당신의 행복을 사시겠습니까?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